



환경부, 7월부터 정수장의 수질관리방법 강화



환경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정수장에서 정수처리기준 등 수질관리방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수돗물 생산능력이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의 탁도 관리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되고, 10만톤/일 이상인 정수장은 탁도와 잔류염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이들 농도를 연속 측정 및 감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수장이 원생동물(지아디아 포낭)을 99.9% 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

생물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02. 7. 5) '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서 2년간 유예되어온 원생동물 관리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독과정에서의 과잉소독방지를 위해 '03. 1. 1부터 10만톤/일 이상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한 먹는물수질기준 준수 의무가 7월부터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강화된 정수처리기준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정수 처리과정에서의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한층 더 안전한 수돗물이 생산되고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 명예감독관제 도입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명예감독관 6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민간 명예감독관들은 팔당호 인근 9개 시·군의 주민들로 시·군과 팔당호 수질보전 지역환경단체인 「한강지킴이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아 공사 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촉하였다.

환경부는 그 동안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부실시공우려가 상존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명예감독관제 도입으로 제3자를 통한 공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들 민간 명예감독관들은 앞으로 공사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하수관오점 등 공사과정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 공사과정의 지역주민 불편·불만사항 신고 및 건의 등 공사 감독에 대한 민간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초 2000년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수수급 전망으로 보면 2016년까지 총량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85개 시·군에서 2,957천³㎡/일의 용수 부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시설의 여유물량을 활용한 급수체계 조정으로 2,062천³㎡/일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등 19개소를 건설·확장하여 1,055천³㎡/일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취수원이 다른 광역상수도 시설 19개소와 광역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시설 24개소를 연결하여,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시 서로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을 12개 권역별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을 24시간 - 원격 감시·제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공급능력이 2001년 현재 47%에서 54%로 확대되고 급수도시가 98개 시·군에서 143개 시·군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대통령 표창 및 신임 학회장 선출



협회 회원사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지난 6월 5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회의 제3기 회장단이 지난 4월 16일 총회에서 교체되어 신임 학회장에 이민호 농학박사(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연구부부장)가 선임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공공부문 최초로 '지속가능경영체제' 출범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Global Top3 물 서비스 기업 도약」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7월 9일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체제를 도입, 출범식을 가졌다. 공사는 이날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담반'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

을 바탕으로, 연말부터는 지속가능경영체제를 본격 가동시킬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적 지속성에 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기업전략으로, 최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의 미래가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출범 사례는 공공부문에서는 최초이다.

한편, 공사는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든 환경경영체제를 한 단계 성숙한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사의 특성을 살린 ▶ 농어촌지역의 수돗물 공급, ▶ 소규모급수시설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관리, ▶ 초중등학교 음용수 공급 지원, ▶ 해안도시지역의 해수담수화사업 등 물 관련 사회공헌활동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 3대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탄탄히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수돗물 민원 사이버로 '척척' 처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각종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사이버 민원서비스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본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단수정보와 수도사용료, 사용료 납부기한 등 각종 상수도 관련 생활정보를 시민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SMS (Short Message Service)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처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시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부산시 상수도 홈페이지'(waterworks.busan.kr)에 접속해 간단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물문화 체험장 조성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성한 가족과 함께하는 '물문화 체험장'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학적인 정수처리과정을 가족과 함께 견학해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고자 실시한 '물문화 체험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수장 두 곳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물문화 체험장'은 유치원, 초·중학생의 현장학습 및 소풍장소로도 각광을 받으며 현재까지 총 7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족과 함께한 이번 체험행사는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수돗물의 인식제고와 정수장의 쾌적한 환경과 봄꽃이 어우러진 광경 등 가족단위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앞으로도 정수장의 쾌적한 이미지와 꽃단지를 부각시키는 행사테마를 설정,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도록 평일, 주말, 공휴일별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수돗물 먹는물 기준에 적합 판정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평 정수장과 공촌 정수장 등 2곳과 이들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부평구와 계양구, 동구, 서구

등의 가정집 수도꼭지 6곳의 물을 채취,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 3개 기관에 의뢰, 55개 전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미생물 항목인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및 건강상 유해 영양물질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크실렌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맛이나 냄새, 경도, PH 등은 기준치 이내로 조사되는 등 전 항목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수도계량기 성능검사로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관리사업소가 수돗물 다량 수용가의 계량기 성능검사로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유량 제어반, 기준탱크 등 첨단 검사시설을 갖추고 계량기 성능검사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돗물 다량 수용가 1,096개소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불감율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도계량기 불감율 성능검사 결과 법률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442개소를 발견하여 교체함으로써 연간 89만톤의 불감지량 개선효과로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다량 수용가

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전월 사용량 비교, 육안점검을 통해 관리하던 것을 수도계량기의 사용기간이 경과될수록 불 감지율이 증가하므로 이를 계량기 성능검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감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정확한 수도물 사용량 계량을 위해 계량기 성능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다량 수용기뿐만 아니라 전 수용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생활하수 정화해 싼 값에 공급

부천시가 생활하수를 1급수로 바꿔 싼 가격에 공업용수 또는 상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희망업체들의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재이용수 공급을 신청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성신레미콘 등 11개 업체로, 수도관 설치공사를 거쳐 10월쯤부터 물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두 212억여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재이용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진 생활하수(3급수)를 1급수 수준으로 고도정화한다.

하루 처리량 4만 5000 t 가운데 2만 5000 t은 인공하천인 시민의 강으로 방류되고, 나머지 2만 t은 중·상동 상업시설과 오정구 삼정동 공업시설에 청소용·화장실용·공업용수로 활용된다. t 당 사용료는 상업용수 320원, 공업용수 230원으로 상수

도 요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 시 관계자는 "재이용수 공급으로 수자원 절약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굴포천 하수종말 처리장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지역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75만 t의 생활하수를 3급수로 처리해 굴포천과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여주시, 양질의 수도물 공급 및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에 노력



여주시는 노후화된 둔덕정수장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 용량을 1일 2만톤으로 확장하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 슬러지 및 역세척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둔덕·오천정수장 배출수 처리공사로 인근하천 및 해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돌산 지역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마을별

우선순위에 의해 금성리 성두외 10개마을에 23억원을 투자하여 20km의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689세대에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급수구역인 소라, 울촌, 화양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지하수 고갈 및 염분유입으로 상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남면 금오도, 화태도, 대두도에 118억원을 투자하여 식수원 개발 및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료 하였을 뿐 아니라, 거문도 서도, 화정면 개도, 남면 부도, 나발도에 맑은 물을 공급코자 총사업비 228억 원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어 물부족에 대한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상수도 급배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만덕지구 외 6개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32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10억원의 사업비로 13개 블록의 상수도 구역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우수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태백시, 먹는 물 '무료수질검사제' 운영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

태백시가 시민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무료수질검사제』를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대민 서비스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 관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먹는 물(샘물, 지하수, 계곡수 등)의 안전도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신청·접수를 받게 되었을 시,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채수를 하고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1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2~3일후 통보해 시민들에게 음용 가능여부를 상세하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이 같은 먹는 물 무료수질검사제 운영이 자칫 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건강저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대민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태백시는 올 상반기(6월말 기준)까지 먹는 물 무료검사제를 운영해 온 결과 총 27건의 검사실적 중 적합이 19건(70%), 부적합이 8건(3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주시, 올 하수도 사용료 70%까지 현실화



충주시는 지난 7월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3년 2월 28일 하수처리원가의 60% 수준까지 현실화한 하수도사용료를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처리원가의 7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또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처리구역내 사용자로부터 부담하게 하여 하수도 재정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고문은 단가 인상을 현재 톤당 220.46원에서 260.68원으로 평균 18.25%로 하고 하수배출량의 조사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내용, 권한위임 조항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충주시 하수시설과(850-5672)로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충주시, 내년까지 31개 자연마을에 수도물 급수 확대

충주시는 오는 2005년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 외곽지역 56개 자연마을 7,380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58억 2,000만원을 들여 57km의 수도관을 매설해 청주역 주변을 비롯한 강서2동, 내곡, 화계, 오근장동 반송말마을 등 2,349가구 6,700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근장동을 비롯해 강서1동, 강서2동지역 16개 자연마을에 2,143만원을 들여 16km의 수도관을 매설해 614가구에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15개 자연마을 4,418가구에 대한 수도물 급수 공사를 끝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계획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 외곽 미급수지역 수도물 급수 확대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 위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충분한 수도물 공급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에 45억 투자



제주시는 지난 7월말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제자유도시 관문도시에 걸맞은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낡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구획화 된 지역부터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화북공업지역에 25억원을 투자, 5.2km를 정비하는 등 내년까지 45억원을 들여 9.1km를 분류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화북공업지역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합류식으로 시설된 다른 지역의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전체 하수관거 총 연장 1,049km 중 분류식으로 돼 있는 지역은 기존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지구인 삼양, 외도, 노형, 일도, 이도지구 등 전체의 36%인 374km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빗물 재활용시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는 물절약 의식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빗물을 모아 재활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빗물이용시설 설치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며, 일선 시·군은 이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자체적인 관련 조례를 제정,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게 된다.

또한 도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건축물 등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빗물을 적극 이용할 경우 공장은 최대 65%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수도물 사용량을 줄이고 빗물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 북미대륙, 국경을 초월한 수질 오염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 국경 수자원 위원회'는 리오그란데 강의 일부인 멕시코 엘파소와 수하레즈 유역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양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했다.

1,896마일에 이르는 리오그란데 강은 북미에서 5번째로 긴 강이며 콜로라도 산후안 산맥에서 발원해 뉴멕시코와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거쳐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간다.

미국과 멕시코 당국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니켈 등의 함유량이 텍사스 주의 기준 수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염도 및 염화물과 황의 농도는 하류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그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위원회 미국 지부의 환경보호 전문가 다니엘 보룬다는 오염 물질의 농도와 형태는 강 유역의 인구, 토지 사용, 산업 및 농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보룬다는

뉴스를 기다립니다!

상하수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알고 싶은 소식이나 뉴스가 있으면 협회 담당자(홍보팀 신재택)에게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jtshin@kwwa.or.kr

*사진자료는 인쇄를 위해 고해상도 300dpi 이상 (jpg 또는 bmp파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도심의 빗물에서 생기지만 우려할 정도의 양은 아니다. 리오그란데 강 유역에 도심의 쓰레기 및 살충제를 투기하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선전시, 심각한 물부족 직면

선전시가 가뭄과 폭염으로 수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홍콩에 대한 공급은 영향 받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선전시 홍수/가뭄/풍재 예방통제국 라오리양 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선전시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총 용량의 24%에 불과한 8천만큐빅미터로 평소대로 사용할 경우 1달밖에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은 현재 선전시를 지나는 주강(珠江) 지류인 동강(東江) 수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강 수자원의 70%가 홍콩으로 공급된다.

선전시 대부분 저수지의 물은 동강과 이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갈된 상태로, 강 상류의 물은 오염을 막기 위해 약 57.1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으로 홍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신화통신은 선전시 기업생산이 타격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선전시는 롱간과 바오안지역 건설현장, 사우나 및 자동차 세차설비에 대한 물 공급을 이 지역의 상용 수자원 소비를 위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3차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 책정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1994년도 하수도 기술의 개발, 도입 프로그램으로서 처음 책정되었던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제1차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에 이어, 21세기를 앞둔 2000년에 「물, 마을, 지구의 신세계」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신하수도기술 5개년계획」(제2차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을 책정하여, 하수도기술의 개발과 도입·보급에 노력해 왔다.

국토교통성에서는 2003년에 「국토교통성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사회자본비중점계획」에 근거하여, 하수도를 포함하는 사회자본 전체의 정비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분야에 대해, 앞으로 5년간에 걸친 국토교통성의 기술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수도에 관한 기술은 토목, 건축, 위생, 기계, 전기 등과 같은 폭넓은 기술 분야에 관련되어 있어, 기술개발에 관계된 연구자가 하수도기술의 현황과 수요에 대해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통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하수도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2차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 아래 개발된 주요한 기술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새로운 하수도기술의 개발과 도입 내용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한 「제3차 하수도기술 5개년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영국] 기후변화와 물 부족 대비해 빗물수거용 물탱크 권고

영국 환경 운동가들은 빗물 수거가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비용 절감과 물 수요 절감에도 최고라고 말한다. ‘빗물수거 연합’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담기위해 정원에 잠수함 모양의 물탱크를 묻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모아진 물은 화장실 청소 뿐 아니라 홍수 피해도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더욱 건조해지고 홍수 피해도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의미가 있다.

영국의 지방 환경청은 ‘빗물수거 연합’을 지원하고 있는데, 빗물 수거가 특히 사무실과 공장 및 공공건물에 이롭다고 말한다. ‘빗물수거 연합’은 “공공 수질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물 중에서 1% 미만의 물이 현실적으로 식생활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연합에 의하면 화장실 물이 내려갈 때마다 7.5~9.5리터의 물이 배수구로 방출된다고 한다.

기타 낭비 사례로는 정원 물뿌리개의 1시간 가동으로 540리터, 청소기 한번 사용으로 65리터의 물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물탱크를 설치한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